

후丑本 『東醫壽世保元』 處方에 관한 研究

한경석* · 박성식*

Abstract

Research about The Discourse on The Discourse on The Medications and Prescriptions on The ShinChukBon DongyiSuseBowon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We can find the Newly created prescriptions of ShinChukBon DongyiSuseBowon which is not described a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and still more not exist symptom in charge. And some of prescriptions of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is not described the composition. So how can we understand that prescriptions is the purpose of research.

2. Methods

All the prescription of ShinChukBon DongyiSuseBowon is analyzed by many directions and compared with early books which is DongyiSuseBowonSasangChoBonKyun, GaBoBon DongyiSuseBowon etc.

3. Result and Conclusion

We can find the analysis of prescriptions of ShinChukBon DongyiSuseBowon as follows

All prescriptions can't be make clear the base of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as only ShinChukBon DongyiSuseBowon. And that is made at the different period

More research is need that how can we understand the Newly created prescriptions which is not described a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prescriptions of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which is not described the composition.

So we must explain again in view of the varies period.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한경석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7-2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031)710-3737

I. 서 론

辛丑本 『東醫壽世保元』¹⁾을 탐독하다 보면 淸心蓮子湯이 어떤 病證에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處方들이 다수 存在하며, 病證論에서는 이 處方이 무슨 藥物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東醫四象新編』²⁾ 등에서 그 主治證을 참조하거나 藥物構成을 통해서 그 病證을 유추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³⁾,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⁴⁾, 甲午本 『東醫壽世保元』⁵⁾ 등이 발견되어 연구되면서 辛丑本の 다수 處方들이 그 이전 書籍에 기술된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시각에서 處方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에 언급된 모든 處方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東醫四象新編』,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⁶⁾,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 등의 處方과 비교하여 보았다.

II. 研究方法

1. 本 研究는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에 기술된 處方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病證論的 所屬이 不分明하거나, 處方名만 기술된 處方에 대해서 甲午本 『東醫壽世

保元』,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補遺方,⁷⁾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 『東醫四象新編』 등과 비교해 보았다.

2. 本 研究에서 사용한 版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정하였다.

- 1) 活字화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
- 2) 精確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통해서 復元한 甲午年의 『東醫壽世保元』⁸⁾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⁹⁾
- 3) 1951年 金九翬이 筆寫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草本卷'이라 칭하였다.
- 4) 1951年 金九翬이 筆寫한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을 '備忘錄'이라 칭한다.
- 5)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는 '東武遺稿'로 칭하였다.
- 6) 『東醫四象新編』은 '四象新編'이라 칭하였다.(표 내에서는 新編으로 약칭하였다.)

III. 本 論

1. 傷寒論 經驗藥方の 分析

辛丑本 經驗藥方중에서 傷寒方은 모두 37方으로 少陰人 23方, 少陽人 10方, 太陰人 4方이다. 이중에서 半夏散과 大柴胡湯을 제외하고 35處方이 모두 病證論 中에서 用例가 있다. 四象新編에서는 37方 中에서 23方이 藥物構成의 변형없이 기술되고 있다. 하나 특이한 것이 後世方에서 今考更定을 하여 타 體質藥을 삭제한 處方이 다수 보이나 傷寒方에서는 전혀 今考更定을 하지 않았다.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友文社. 1929.
 3) 金九翬 筆, 李濟馬 原著.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 筆寫本. 1951.
 4) 金九翬筆, 李濟馬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5)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6)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7)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8)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9) 2001년 四象體質醫學會에서 간행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은 復元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 韓旻錫.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2000을 참조한다.

(1) 少陰人 傷寒論 經驗藥方 (23處方)

少陰人 經驗藥方の 傷寒方은 모두 23개이며 辛丑本의 病證論중에서 半夏散¹⁰⁾과 관련된 條文을 제외한 22處方과 관련된 조문들이 모두 기술된다. 이 중에서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된 處方은 9方으로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順理中湯, 人蔘桂枝湯, 厚朴半夏湯, 半夏散, 四逆湯, 赤石脂禹餘糧湯이다. 타 체질 약물과 혼합된 處方은 14方으로 附子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當歸四逆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茵陳蒿湯, 抵當湯, 桃仁承氣湯, 麻仁丸, 蜜導法, 大承氣湯, 小承氣湯이다. 그리고 四象新編에서 기술되는 處方이 5방이며 桂枝湯, 理中湯, 薑附湯, 四逆湯, 赤石脂禹餘糧湯이고, 이는 모두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되었고, 타 體質 藥物과 혼합되어 있는 東武의 傷寒論 處方은 기술되지 않았다(표 1).

표 1. 少陰人 傷寒方의 比較 (23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物 混用	新編存在 有無
桂枝湯	○	×	○
理中湯	○	×	○
薑附湯	○	×	○
四順理中湯	○	×	×
人蔘桂枝湯	○	×	×
四逆湯	○	×	○
厚朴半夏湯	○	×	×
半夏散	×	×	×
赤石脂禹餘糧湯	○	×	○
附子湯	○	○	×
麻黃附子甘草湯	○	○	×
麻黃附子細辛湯	○	○	×
當歸四逆湯	○	○	×
半夏瀉心湯	○	○	×
生薑瀉心湯	○	○	×
甘草瀉心湯	○	○	×
茵陳蒿湯	○	○	×
抵當湯	○	○	×
桃仁承氣湯	○	○	×
麻仁丸	○	○	×
蜜導法	○	○	×
大承氣湯	○	○	×
小承氣湯	○	○	×

1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 19 “少陰病 咽中痛 宜半夏散”(辛丑本에서는 삭제된 條文이다.)

(2) 少陽人 傷寒論 經驗藥方 (10處方)

少陽人 經驗藥方の 傷寒方은 모두 10개이며, 辛丑本 病證論에서 관련된 條文들이 모두 존재한다. 少陽人 藥物로만 구성된 處方은 전혀 없으며, 四象新編 역시 傷寒方을 變形시키지 않고 그대로 실어 놓았다. 四象新編에서 기술된 處方이 4方으로 白虎湯, 豬苓湯, 五苓散, 腎氣丸이다. 특이한 것이 腎氣丸의 用例은 太陰人篇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되는중 해당 條文의 篇第는 옮겨졌으나 處方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2).

표 2. 少陽人 傷寒論 處方의 比較 (10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物 混用	新編存在 有無
白虎湯	○	○	○
豬苓湯	○	○	○
五苓散	○	○	○
小柴胡湯	○	○	×
大青龍湯	○	○	×
桂枝各半湯	○	○	×
小陷胸湯	○	○	×
大陷胸湯	○	○	×
十棗湯	○	○	×
腎氣丸	○	○	○

(3) 太陰人 傷寒論 處方 (4處方)

太陰人 經驗藥方の 傷寒方은 모두 4處方이며, 辛丑本 病證論중에서 大柴胡湯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된 용례가 기술된다. 桂枝各半湯은 少陰人篇과 少陽人篇에서 用例가 기술되었다. 東武는 傷寒方의 藥物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麻黃湯에서만 病證論중에서 타 體質藥物을 빼고 쓰야 한다¹¹⁾고 기술하고 있다(표 3).

1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四)1 “論曰 … 麻黃湯 非不當用 而桂枝甘草 皆爲竊材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표 3. 太陰人 傷寒論 處方の 比較 (4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物 混用	新編存在 有無
麻黃湯	○	○	×
桂麻各半湯	○	○	×
調胃承氣湯	○	○	×
大柴胡湯	×	○	×

2. 唐宋元明 經驗藥方の 分析

辛丑本 經驗藥方중에서 唐宋元明 經驗藥方은 모두 37方으로 少陰人 19方, 少陽人 9方, 太陰人 9方이다. 이 處方들의 病證論중의 用例有無, 體質藥物의 混用有無, 今考更定の 有無, 四象新編의 存在有無를 體質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陰人 宋元明 經驗藥方 (19處方)

少陰人 宋元明 經驗藥方은 모두 19處方이며, 辛丑本の 病證論中에서 대략 절반 정도만 既存 醫書를 인용한 條文中에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用例를 알 수 없었다. 少陰人 藥物로만 구성된 處方은 9방으로 木香順氣散, 香蘇散, 桂枝附子湯, 茵陳四逆湯, 茵陳附子湯, 茵陳橘皮湯, 三味蓼萸湯, 霹靂散, 三稜消積丸이며, 이 9方은 四象新編에서 모두 기술되었고, 그 외 타 體質藥物이 포함된 處方은 10方으로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蘇合香元, 藿香正氣散, 溫白元, 瘴疽丸, 秘方化滯丸, 三物白散, 如意丹이며, 이 10處方중에서 東武가 今考更定하여 타 體質藥物을 삭제하고, 몇 藥物을 추가한 處方이 5方으로 十全大補湯, 補中益氣湯, 香砂六君子湯, 蘇合香元, 藿香正氣散이다. 今考更定한 10方중에서 補中益氣湯과 蘇合香元은 四象新編에서 處方名과 藥物構成이 설명되었지만, 今考更定하지 않은 9方중에 四象新編중에서 타 體質藥物을 삭제한 處方이 3方으로 溫白元, 瘴疽丸, 如意丹이다(표 4).

표 14. 少陰人 宋元明 處方の 比較 (19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物 混用	今考更 定有無	新編存 在有無
十全大補湯	×	○	○	○
補中益氣湯	×	○	○	○
香砂六君子湯	△	○	○	○
木香順氣散	×	×	×	○
蘇合香元	△	○	○	○
藿香正氣散	○	○	○	×
香蘇散	○	×	×	○
桂枝附子湯	○	×	×	○
茵陳四逆湯	△	×	×	○
茵陳附子湯	○	×	×	○
茵陳橘皮湯	△	×	×	○
三味蓼萸湯	○	×	×	○
霹靂散	○	×	×	○
溫白元	×	○	×	○
瘴疽丸	○	○	×	○
三稜消積丸	×	×	×	○
秘方化滯丸	×	○	×	○
三物白散	○	○	×	○
如意丹	×	○	×	○

보기 : △는 기존의서의 인용조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동무가 언급한 處方이다.

(2) 少陽人 元明 經驗藥方 (9處方)

少陽人 元明 經驗藥方은 모두 9處方中이며, 이중 病證論에서 한번도 언급 안된 處方이 4方으로 導赤湯, 肥兒丸, 生熟地黃丸, 消毒飲이다. 9處方중에서 今考更定해서 타 體質藥物을 삭제한 處方이 7방으로 涼膈散, 黃連猪肚丸, 六味地黃湯, 導赤湯, 荊防敗毒散, 肥兒丸, 消毒飲이다. 四象新編에서 역시 타 體質藥物이 삭제된 處方위주로 기재되어 있다. 少陰人 宋元明 經驗藥方과 다른 것은 타 體質藥物을 삭제해 놓기만 했지 추가하지는 않았다(표 5).

표 5. 少陽人 元明方 比較 (9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新編存 在有無
涼膈散	○	×	○	○
黃連豬肚丸	○	×	○	×
六味地黃湯	○	×	○	○
生熟地黃丸	×	○	×	○
導赤湯	×	×	○	○
荊防敗毒散	○	×	○	×
肥兒丸	×	×	○	○
消毒飲	×	×	○	○
水銀煎鼻方	○	×	×	○

(3) 太陰人 唐宋明 經驗藥方 (9處方)

太陰人 唐宋明 經驗藥方에서 모두 9處方이 기술되었으며, 病證論中에서 用例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處方은 4方으로 生脈散, 石菖蒲遠志散, 檇根皮丸, 調中丸이다. 9處方중에서 太陰人 藥物로만 구성된 處方은 3方으로 石菖蒲遠志散, 檇根皮丸, 二聖救苦丸이다. 나머지 타 體質藥物이 혼합된 處方은 6處方으로 調中湯, 黑奴丸, 生脈散, 葛根解肌湯, 牛黃清心丸, 麻黃定喘湯이고, 이 處方들은 동무가 今考更定하여 타 체질약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四象新編에서는 기술되는 處方은 4方으로 石菖蒲遠志散, 黑奴丸, 生脈散, 二聖救苦丸이다(표 6).

표 6. 太陰人 唐宋明 處方の 比較 (9處方)

經驗藥方	病證論 用例	體質藥 物混用	今考更 定有無	新編存 在有無
石菖蒲遠志散	×	○	×	○
調中湯	×	×	○	×
黑奴丸	○	×	○	○
生脈散	×	×	○	○
檇根皮丸	×	○	×	×
二聖救苦丸	○	○	×	○
葛根解肌湯	○	×	○	×
牛黃清心丸	○	×	○	×
麻黃定喘湯	○	×	○	×

3. 新定方の 分析

辛丑本 新定方은 變方까지 해서 少陰人 31方, 少陽人 20方, 太陰人 26方, 太陽人 2方이다. 이 處方들중에는 病證論 中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 處方이 있으며, 主治證만 적혀 있는 處方이 있으며, 主治證과 病證論 中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處方이 있다. 이를 체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陰人 新定藥方 (31處方)

少陰人 新定藥方은 모두 31處方(變方까지 포함)이고,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한번도 설명되지 않는 處方은 10方으로 當歸白何烏寬中湯,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人蔘白何烏寬中湯, 鷄參葶, 寬中丸, 蒜蜜湯, 人蔘官桂附子湯, 人蔘陳皮湯, 香附子八物湯이다.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한번도 설명되지 않은 10處方중에서 新定藥方에서 主治證만 기술된 處方이 6方으로 鷄參葶, 寬中丸, 蒜蜜湯, 人蔘官桂附子湯, 人蔘陳皮湯, 香附子八物湯이고, 主治證조차 설명되지 않은 處方은 4方으로 當歸白何烏寬中湯,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人蔘白何烏寬中湯이다(표 7).

표 7. 辛丑本 少陰人 新定藥方の 比較 (31處方)

新定藥方	病證論 川例	主治證
鷄參膏	×	○
桂枝半夏生薑湯	○	○
藟香正氣散	○	○
官桂附子理中湯	○	○
寬中湯	○	○
寬中丸	×	○
芎歸香蘇散	○	○
當歸白何烏寬中湯	×	×
獨參八物湯	○	○
白何烏君子湯	×	×
白何烏附子理中湯	○	○
白何烏理中湯	○	○
補中益氣湯	○	○
蒜蜜湯	×	○
升陽益氣附子湯	○	○
升陽益氣湯	○	○
十全大補湯	×	×
吳茱萸附子理中湯	○	○
人蔘桂枝附子湯	○	○
人蔘官桂附子湯	×	○
人蔘白何烏寬中湯	×	×
人蔘吳茱萸湯	○	○
人蔘陳皮湯	×	○
赤白何烏寬中湯	○	○
川芎桂枝湯	○	○
巴豆丹	○	○
八物君子湯	○	○
香附子八物湯	×	○
香砂養胃湯	○	○
黃芪桂枝附子湯	○	○
黃芪桂枝湯	○	○

1) 新定藥方에서 主治證만 언급된 處方 (6處方)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없고 新定方에서 主治證만 있는 경우로 東武가 病證 分類를 하지 않은 處方은 6방으로 鷄參膏, 寬中丸, 蒜蜜湯, 人蔘官桂附子湯, 人蔘陳皮湯, 香附子八物湯이다(표 8).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主治證만 있는 處方들 (6處方)

新定方	新定藥方 主治證
鷄參膏	瘧疾痢疾
寬中丸	腹痛
蒜蜜湯	痢疾
人蔘官桂附子湯	亡陽危病
人蔘陳皮湯	小兒陰毒慢風
香附子八物湯	婦人思慮傷脾咽乾舌燥隱隱有頭痛

① 鷄參膏

鷄參膏는 少陰人의 瘧疾痢疾을 主治하는 處方이다.

普濟演說¹²⁾에서는 “少陰人 痢疾 鷄參膏 眞人養臟湯(項赤蛇尤好)可也”라 하였다.

辛丑本의 鷄參膏¹³⁾는 甲午本의 鷄參膏¹⁴⁾에서 桂皮가 追加된 處方이며, 普濟演說의 鷄參膏¹⁵⁾는 人蔘의 分量이 20錢으로 되어 있다(표 9). 이는 辛丑本이나 甲午本에서 東武가 제시한 少陰人 四大病證이 아닌 甲午本 泛論 등에서 다수 기술되던 雜證의 範疇에서 사용되던 處方類型¹⁶⁾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藥物使用 精神을 엿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 金達來 編譯. 東醫壽世保元補編. 대성의학사. 2002. : 11

1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二)44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 鷄參膏 人蔘 一兩 桂皮 一錢 鷄 一首 濃煎服 或以胡椒 清蜜 助滋味 無妨 此方 自古有方 治瘧疾·痢疾 神效 嘗治久痢 先用 巴豆 通利大便 後數三日連用 鷄參膏 快效 桂皮 或以 桂心 代用

1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31 “鷄參膏 人蔘一兩 鷄一首 濃煎服 此方出於古方 謂中 治瘧疾痢疾 此方用不人蔘而用 黃芪一兩 桂皮二錢 則名曰 鷄芪膏”

15) 金達來 編譯. 東醫壽世保元補編. 前掲書 : 223

16) 少陽人 雜證에 대해서는 少陽人의 四大病證에 배속시켰으나 少陰人 雜證에 대해서는 四大病證에 배속시키지 않았다.

표 9. 甲午本과 辛丑本의 鷄蓼膏

	辛丑本	甲午本	普濟演說
人蓼	10	10	20
鷄	1 首	1 首	1 首
桂皮	1		1

<단위 : 錢>

② 寬中丸

寬中丸과 寬中湯은 少陰人의 小便不快 陽道不興 四體倦怠 無力을 主治하는 處方이다. 辛丑本에서 말하는 寬中湯은 『東醫寶鑑』 「積聚門」의 寬中湯이 母體가 되는 處方이다.¹⁷⁾ 陳皮, 靑皮, 良薑, 生薑의 寬中湯의 藥物이 사용된 處方을 살펴보면 備忘錄의 芎歸葱蒜理中湯¹⁸⁾, 甲午本의 薑朮破積湯¹⁹⁾, 辛丑本의 赤白何烏寬中湯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寬中湯이란 이름은 辛丑本에 와서야 처음 붙게 된다. 여기서 볼 때 寬中湯의 精神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있었지만 備忘錄에서 芎歸葱蘇理中湯은 主治證이 全身濕瘡發斑不忍痒으로 處方名과 같이 理中湯의 範疇로 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寬中湯의 主治證과 다르며,²⁰⁾ 甲午本의 薑朮破積湯은 處方名과 같이 寒積을 푸는 處方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東醫寶鑑』의 寬中湯의

쓰임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이 辛丑本으로 이어져 가면서 處方이 매우 간략화 되었다. 그리고 少陰人 寬中丸에 益智仁과 五靈脂를 가하게 되면 太陰病의 甚한 寒積으로 인한 腹痛을 治療한다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寬中湯 藥物활용정신이 비교적 초기에 나와서 비교적 끝까지 이어갔으며, 처음 『東醫寶鑑』에서 한적을 푸는 寬中湯의 정신은 赤白何烏寬中湯으로 완성되었고, 寒積이 있는 사람에서 太陰病의 腹痛 泄瀉에는 薑朮寬中湯으로 완성이 되었다.

③ 蒜蜜湯

蒜蜜湯은 人蓼葱粟殼湯과 함께 少陰人의 痢疾을 주치하는 處方이다. 甲午本과 辛丑本의 少陰人 泛論에서 “嘗見少陰人痢疾 有醫 數以大蒜三顆 清蜜半匙 同煎三日服 卽效”라 하였고, 이에 대해서 四象新編에서는 蒜蜜膏라는 處方名을 사용하였다. 甲午本당시 또는 甲午本以前에 大蒜과 清蜜이라는 藥物로 痢疾治療하는 남의 경험과 甲午本에서 痢疾을 치료하는 新定方인 人蓼葱粟殼湯²¹⁾이 합쳐져서 辛丑本의 蒜蜜湯이 탄생된 것으로 보인다(표 10). 따라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雜證精神이 들어 있는 處方이기에 病證論 중에서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7)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8 : 494
 “寬中丸 : 蒼朮炒 烏藥 香附子(20) 三棱 蓬朮三棱并醋煮焙乾 靑皮 陳皮 乾薑炮 良薑炮 茴香炒 神麴炒 麥芽炒(10)”
 18) 韓敏甲 筮,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前掲書 “芎歸葱蒜理中湯 當歸 川芎 各二錢 人蓼 蘇葉 白朮 乾薑 良薑 靑皮 陳皮 炙甘草 各一錢”
 19)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30 “薑朮破積湯 蒼朮 白朮 良薑 乾薑 白何首烏 獨頭蒜 陳皮 靑皮 厚朴 枳實 木香 大腹皮 各一錢 白芍藥 炙甘草 各五分 大棗二枚”
 20) 備忘錄에서 主治證이 “全身濕瘡發斑不忍痒”으로 『東醫寶鑑』 「積聚門」의 寬中湯은 甲午本과 辛丑本의 太陰病 水結 또는 寒實에 사용하는 寬中湯의 劑와 거리가 있다.

2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30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人蓼葱粟殼湯 人蓼 白朮 白芍藥 益母草 各二錢 葱粟殼 陳皮 炙甘草 各一錢 薑三棗二”

표 10. 甲午本과 辛丑本の 少陰人 痢疾處方

	甲午本		辛丑本
	蒜蜜疳	人蔘鴛粟殼湯	蒜蜜湯
大蒜	3(顆)		5(根)
清蜜	1/2(匙)		1/2(匙)
鴛粟殼		1	1
白何烏			1
白朮		2	1
白芍藥		2	1
桂枝			1
茵陳			1
益母草		2	1
赤石脂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人蔘		2	
陳皮		1	
炙甘草		1	

<단위 : 錢>

④ 人蔘官桂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은 少陰人 亡陽危病을 主治하는 處方이다. 亡陽危病에 사용하는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의 4處方중에서 人蔘의 分量이 가장 많은 處方이므로, 用例는 기술되지 않으나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⑤ 人蔘陳皮湯

人蔘陳皮湯은 少陰人 小兒 陰毒慢風을 主治하는 處方이다. 처음 甲午本の 病證論 治驗例에서 “少陰人 小兒가 下利清水에 얼굴색이 검푸르고 기운이 빠져 昏睡狀態에 獨蔘湯 加 生薑二錢 陳皮一錢 砂仁 一錢을 사용하라”²²⁾고 하였다. 이는 辛丑本 人蔘陳皮湯과 藥物構成과

2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二)18

“又 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黯 氣陷如睡 用 獨蔘湯 加生薑二錢 陳皮一錢 砂仁 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主治證²³⁾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人蔘陳皮湯의 母體가 되는 獨蔘湯加味方은 大棗를 使用하지 않았고²⁴⁾ 處方名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온 處方으로 추정되며, 辛丑本 人蔘陳皮湯 역시 비교적 初期에 어느정도 구성된 處方이며 以後에 甲午本 獨蔘良崩湯²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補遺方에서는 獨蔘湯을 甲午本 處方이라고 하지만 獨蔘湯 治驗例을 보았을 때에는 그 以前의 處方으로 보인다(표11).

표 11. 人蔘陳皮湯의 비교

	甲午本	辛丑本
	小兒 下利清水 治驗例의 處方	人蔘陳皮湯
人蔘	10	10
生薑	2	1
陳皮	1	1
砂仁	1	1
大棗		2
主治證	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黯 氣陷如睡…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嘗治末周年小兒 陰毒慢風 連服數日 病快愈矣 病愈後 更不服藥 再發不治

<단위 : 錢>

⑥ 香附子八物湯

香附子八物湯은 嘗治婦人思慮傷脾咽乾舌燥 隱隱有頭痛神效를 주치로 하고 있는 處方이다.

2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上掲書 : (卷之二)44

“人蔘陳皮湯의 主治證 : 嘗治末周年小兒 陰毒慢風 連服數日 病快愈矣 病愈後 更不服藥 再發不治”

24) 大棗는 備忘錄에서는 導痰湯에서만 사용되었고, 草本卷에서는 모든 少陰人 處方에 薑三棗二가 있었으며, 甲午本에서는 芎歸香蘇散을 제외한 거의 모든 處方에 사용되었고, 辛丑本에서는 太陰病處方을 제외한 거의 모든 處方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人蔘陳皮湯의 모체가 되는 獨蔘湯加味方은 동무의 아주 초기의 醫學經驗例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2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31 “獨蔘良崩湯 人蔘 一兩 生薑 二錢 砂仁 常歸 桂皮 陳皮 各一錢 棗二 小兒 泄瀉驚風”

이 處方을 언뜻보면 八物君子湯의 變方으로 보이지만, 十全大補湯 등과 같이 八物君子湯의 變方으로 있지 않고, 독립된 處方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藥方門중에서 治驗例가 나오며, 病證論중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雜症處方으로 보인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黃芪라는 藥物로 草本卷의 八物湯에서 사용되지 않던 藥物이 甲午本의 八物湯인 升陽八物湯과 辛丑本의 八物湯인 八物君子湯에서 사용되는데, 香附子八物湯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즉 黃芪를 쓰지 않은 것을 보면 甲午本 이전의 비교적 初期思考가 들어 있는 雜證處方인 것을 알 수 있다.

2) 主治證과 用例가 모두 없는 경우

少陰人 新定方 31處方중에서 當歸白何烏寬中湯, 人蔘白何烏寬中湯, 白何首烏君子湯, 十全大補湯의 4處方은 用例와 主治證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處方이다(표 12). 그러나 이 處方들은 모두 變方들이기에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處方 (4處方)

處方名	新編有無	新編主治證有無	비고
當歸白何烏寬中湯	○	×	赤白何烏寬中湯의 變方
人蔘白何烏寬中湯	○	×	
白何首烏君子湯	○	×	八物君子湯의 變方
十全大補湯	○	×	

(2) 少陽人 新定藥方 (20處方)

少陽人 新定藥方은 모두 20方(變方까지 포함)이고, 病證論 中에서 用例가 한번도 설명되지 않은 處方은 3방으로 輕粉甘遂雌雄丹, 乳香沒藥輕粉丸, 朱砂益元散이다. 이 3處方중에서 朱砂益元散만이 主治證이 설명되어 있고, 나머

지 輕粉甘遂雌雄丹, 乳香沒藥輕粉丸은 主治證조차 기술되지 않는다(표13).

표 13. 辛丑本 少陽人 新定藥方の 比較

新定藥方	用例	主治證
甘遂天一丸	○	○
輕粉甘遂龍虎丹	○	○
輕粉甘遂雌雄丹	×	×
獨活地黃湯	○	○
木通大安湯	○	○
熟地黃苦蓼湯	○	○
十二味地黃湯	○	○
涼膈散火湯	○	○
陽毒白虎湯	○	○
乳香沒藥輕粉丸	×	×
忍冬藤地骨皮湯	○	○
猪苓車前子湯	○	○
朱砂益元散	×	○
地黃白虎湯	○	○
荊防導赤散	○	○
荊防瀉白散	○	○
荊防地黃湯	○	○
荊防敗毒散	○	○
滑石苦蓼湯	○	○
黃連清腸湯	○	○

1) 主治證만 언급된 處方 (1處方)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없고 新定方에서 主治證만 있는 경우로 東武가 病證 分類를 하지 않은 處方은 유일하게 朱砂益元散뿐이다.

朱砂益元散은 夏月滌暑를 주치로 하는 處方이다. 처음 『東醫寶鑑』의 辰砂益元散²⁶⁾에서 滑石과 辰砂를 사용하는 정신이 나와서 草本卷에 그대로 사용되다가 甲午本을 거쳐 조금씩 고쳐져서 辛丑本에서 완성된 處方으로, 雜症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표 14).

26 許浚. 前掲書 : 401 “辰砂益元散 治傷寒熱不退狂言譫語 滑石 六兩 甘草 辰砂 各一兩 右細末每二錢 井水調下日二三 入門”

표 14. 益元散類의 비교

	東醫寶鑑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辰砂益元散	益元散	朱砂益元散	
滑石	60	2.5	1.5	2
甘草	10	0.5		
朱砂	10(辰砂)	0.1	0.1	0.1
白虎骨			1.5	
澤瀉				1
甘遂				0.5
主治證	傷寒熱不退狂言譫語	暑氣腹痛	暑證	夏月滌暑

<단위 : 錢>

2)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경우 (2處方)

少陽人 新定方 20處方중에서 甘遂天一丸의 變方인 輕粉甘遂雌雄丹, 乳香沒藥輕粉丸의 2方에서 用例와 主治證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표 15).

표 15.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處方 (2處方)

處方名	新編有無	新編主治證有無
輕粉甘遂雌雄丹	×	×
乳香沒藥輕粉丸	×	×

(3) 太陰人 新定藥方 (26處方)

太陰人 新定方은 모두 26方(變方까지 포함)으로 病證論 中에서 用例가 한번도 설명되지 않은 處方은 8方으로 清心蓮子湯, 葛根大承氣湯, 葛根小承氣湯, 葛根浮萍湯, 乾栗樗根皮湯, 瓜蒂散, 麝香散, 麥門冬遠志散이다. 이 7處方중에서 葛根浮萍湯, 乾栗樗根皮湯, 瓜蒂散의 3處方만이 主治證이 설명되고 있으며, 나머지 5處方인 清心蓮子湯, 葛根大承氣湯, 葛根小承氣湯, 麝香散, 麥門冬遠志散은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기술되지 않는다(표 16).

표 16.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의 比較 (26處方)

新定藥方	用例	主治證
太陰調胃湯	○	○
葛根解肌湯	○	○
調胃升清湯	○	○
清心蓮子湯	×	×
麻黃定喘湯	○	○
麻黃定痛湯	○	○
熱多寒少湯	○	○
寒多熱少湯	○	○
葛根承氣湯	○	○
葛根大承氣湯	×	×
葛根小承氣湯	×	×
調理肺元湯	○	○
麻黃發表湯	○	○
補肺元湯	○	○
鹿茸大補湯	○	○
襄信黑元丹	○	○
皂角大黃湯	○	○
葛根浮萍湯	×	○
乾栗蟻螬湯	○	○
乾栗樗根皮湯	×	○
瓜蒂散	×	○
熊膽散	○	○
麝香散	×	×
石菖蒲遠志散	○	○
麥門冬遠志散	×	×
牛黃清心元	○	○

1) 主治證만 있는 경우 (3處方)

太陰人 新定方 26處方중에서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없고 新定方에서 主治證만 있는 경우로 東武가 病證 分類를 하지 않은 處方은 葛根浮萍湯, 乾栗樗根皮湯, 瓜蒂散의 3處方으로, 四象新編에서 역시 같은 主治證이 설명되고 있다(표 17).

표 17.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에서 主治證만 있는 處方 (3處方)

新定藥方	主治證의 比較	
	新定藥方	新編
葛根浮萍湯	浮腫裡症熱多	浮腫裡熱者
乾栗樗根皮湯	治痢疾	治痢疾
瓜蒂散	卒中風臆膈格格有窒塞聲及目瞪	卒中風臆膈格格有窒塞聲及目瞪

2)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경우 (5處方)

太陰人 新定方 26處方에서 病證論중의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기술되지 않은 處方은 淸心蓮子湯, 葛根大承氣湯, 葛根小承氣湯, 麝香散, 麥門冬遠志散의 5處方이다. 그 중에서 麝香散은 실제로 甲午本상의 病證論중에 處方名은 없고 藥物構成만 기술되어 있다.

淸心蓮子湯은 太陰人에 多用하는 處方중에 하나로 辛丑本으로는 用例나 主治證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四象新編에 “虛勞夢泄無度 腹痛泄瀉 舌卷中風 食滯 胸腹痛”라는 主治證이 나온다. 四象新編의 主治證상증에서 “虛勞夢泄無度 腹痛泄瀉 舌卷中風”는 甲午本 淸心蓮子湯 用例²⁷⁾이며, “食滯 胸腹痛”의 出典은 알수 없다.

麝香散은 甲午本과 辛丑本の 病證論에서 處方名이 기술된 곳은 없으며 藥物構成만 기술된 곳이 보인다. 辛丑本の “中毒吐瀉 宜用麝香”에서 麝香은 新定藥方의 麝香散으로 보아야 한다. 이 處方은 甲午本에서 表裏俱病, 中風 등의 危險證²⁸⁾에서 桔梗生脈散과 같이 調

- 27)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50 “太陰人 一證 無腹痛 下利 而有舌卷不語 中風病 危急病也 不可瞬息遲滯而急治 當用牛黃救急 因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七條 “太陰人 一證 有夢泄病 其病爲 虛勞 而思慮所傷也 太重且難 不可不急治 必禁嗜欲 戒侈樂 此證 當用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加龍骨 一錢”
- 28)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49 “論曰 體熱 腹滿 自利之證 外感內觸 表裏俱病 最爲危證也 當用桔梗生脈

服²⁹⁾하는 藥物로 사용되어 독립적인 處方의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辛丑本으로 고쳐지면서 中毒吐瀉에 사용하는 獨立的 處方의 의미³⁰⁾를 가지게 된다. 四象新編에서는 “中毒吐瀉 急腹痛”이라는 主治證을 설명하고 있는데 “中風吐瀉”는 辛丑本에서 가져온 主治證으로 보이며, “急腹痛”에 대해서는 甲午本에서 가져온 主治證으로 추정된다.

麥門冬遠志散은 太陰人 經驗藥方의 生脈散과 石菖蒲遠志散을 合方한 것이다. 用例와 主治證은 알수 없고 四象新編에 耳目聰明이라고 나오는데 出典은 알수 없다(표 18).

표 17.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에서 用例와 主治證이 모두 없는 處方 (5處方)

處方名	四象新編 主治證
淸心蓮子湯	虛勞夢泄無度 腹痛泄瀉 舌卷中風 食滯 胸腹痛
葛根小承氣湯	處方구성(O), 主治證(x)
葛根大承氣湯	處方구성(x), 主治證(x)
麝香散	治中毒吐瀉
麥門冬遠志散	耳目聰明

(4) 太陽人 處方의 分析

辛丑本の 太陽人 處方은 모두 甲午本の 것으로 太陽人篇 病證論中에서 獼猴藤植腸湯과 五加皮壯脊湯의 2處方만이 기술되었고, 新定藥方에서도 두 處方만을 기술해 놓았다(표 19).

散 或樗根白皮 一錢 麝香 三分 調下 連三四服 急救之. 甲午本 太陰人 裏病論 5條. 太陰人 一證 小兒大人 有腹痛 下利 舌卷不語 中風病 其病重險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桔梗生脈散 調服麝香”

- 29)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53 “麝香散 麝香 三分 桔梗生脈散 煎水調下 先以藥湯 一二匙調服麝香 因盡服餘湯”

- 3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四)16 “麝香散 麝香 三五分 溫水調下 或溫酒調下 只舉三五分則四分在其中”

표 19. 太陽人 處方の 比較

新定方	用例	主治證
獼猴藤植腸湯	○	○
五加皮壯脊湯	○	○

4. 病證論에서 處方名만 확인되는 것들

辛丑本에는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에서 많은 處方과 藥物構成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病證論중에서는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을 벗어난 處方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존의 傷寒方 또는 唐宋元明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것들도 다수 보이지만, 東武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것들도 다수 확인된다. 이를 체질별로 東武處方과 既存處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陰人 新定藥方외의 病證論중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處方들 (25處方)

이는 病證論중에서만 기술된 處方들로 藥方門의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을 벗어난 處方들로 辛丑本에서 處方名만 있고 藥物構成은 없는 處方들이다. 少陰人 病證論 중에서는 薑朮寬中湯, 桂附霍陳理中湯, 桂附理中湯, 芍歸葱蘇理中湯, 人黃大承氣湯, 獨參官桂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獨參湯, 獨參八物君子湯, 附子理中湯, 四順理中湯丸, 四順湯, 瀉心湯, 參桂八物湯, 參萸湯, 小半夏湯, 蘇合元, 承氣湯, 柴胡湯, 理中丸, 人參桂皮湯, 人參附子理中湯, 抵當桃仁湯, 朱氏茵陳橘皮湯, 巴豆如意丹의 25處方이 있다. 이 處方들을 기존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것들과 東武가 만든 新定方으로 분류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東武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것들 (14處方)

病證論에서만 處方名만 확인되는 25處方중에서 東武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14方으로 薑朮寬中湯, 桂附霍陳理中湯, 桂附理中湯, 芍歸葱蘇理中湯, 獨參湯, 獨參官桂理中湯, 獨參

附子理中湯, 獨參八物君子湯, 附子理中湯, 參桂八物湯, 參萸湯, 人參桂皮湯, 人參附子理中湯, 巴豆如意丹이다.

東武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14處方中에서 甲午本을 통해 藥物構成이 확인가능한 것은 4方으로 桂附霍陳理中湯, 芍歸葱蘇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이다.

그리고 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해서 藥物構成의 확인이 불가능한 處方중 四象新編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處方은 3方으로 附子理中湯과 薑朮寬中湯, 人參桂皮湯이다.

또한 補遺方을 통해서 藥物構成확인이 가능한 處方은 4處方으로 獨參湯, 桂附霍陳理中湯, 芍歸葱蘇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이다.

따라서 辛丑本을 통해서 藥物構成을 확인할 수 없는 14處方중에서 甲午本, 四象新編, 補遺方을 통해서 藥物構成확인이 가능한 處方은 상기 12處方이며, 藥物構成확인이 불가능한 處方은 6處方으로 桂附理中湯, 參桂八物湯, 參萸湯, 人參附子理中湯, 巴豆如意丹, 獨參八物君子湯이다(표 20).

표 23. 辛丑本 少陰人 病證論중 處方名만 있고 東武의 것으로 推定되는 處方 (14處方)

其他處方	四象新編	甲午本	補遺方
薑朮寬中湯	○	×	×
桂附霍陳理中湯	○	○	○
芍歸葱蘇理中湯	○	○	○
獨參官桂理中湯	○	○	○
獨參附子理中湯	×	○	○
附子理中湯	○	×	×
人參桂皮湯	○	×	×
獨參湯	×	×	○
桂附理中湯	×	×	×
獨參八物君子湯	×	×	×
參桂八物湯	×	×	×
參萸湯	×	×	×
人參附子理中湯	×	×	×
巴豆如意丹	×	×	×

① 甲午本の 것이라 추정되는 處方들 (7處方)

a. 桂附菴陳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의 4處方은 甲午本の 處方으로,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그대로 옮겨진 條文에 나오는 處方이다.³¹⁾ 이 4處方중에서 桂附菴陳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의 3處方은 四象新編, 甲午本과 補遺方에서 藥物構成이 일치하지만, 獨參附子理中湯의 1處方은 補遺方과 甲午本の 藥物構成이 다르다. 즉 補遺方 獨參附子理中湯은 獨參官桂理中湯에서 附子를 加한 藥方³²⁾으로 官桂가 있는 藥方이지만, 甲午本の 獨參附子理中湯은 獨參理中湯에 附子를 加한 藥方³³⁾으로 官桂가 없는 藥方이다(표 21).

표 21. 獨參附子理中湯의 比較

	甲午本	補遺方
人蔘	5	5
白朮	2	2
乾薑	2	2
白芍藥	2	2
陳皮	1	1
炙甘草	1	1
大棗	2(枚)	2(枚)
附子	2	2
官桂		2

<단위 錢>

b. 參桂八物湯은 甲午本 條文에서 少陰人 咽喉痛에 사용하는 處方³⁴⁾으로, 甲午本 新定方에서 기술되지 않는 處方으로 藥物構成을 알 수 없지만, 甲午本の 處方을 보는 것이 타당하며 東武가 甲午本 당시에 新定方에서 빠뜨린 處方으로 보인다.

c. 桂附理中湯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그대로 옮겨진 條文³⁵⁾에서 기술된 處方이며 藥

3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揭書 : (卷之二)29-30
 ① “陽明 太陽之危者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 又連日服則 難解也 少陰 太陰之危者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菴陳理中湯 可以解之而 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 又連日服則 難解也 病勢極危時 日四服 病勢半危時 日三服 病勢不減則 日二服 病勢少減則 二日三服而 一日則 一服 一日則二服 病勢大減則 日一服 病勢又大減則 間二三四五日一服 蓋 有病者 可以服藥 無病者 不可以服藥 重病 可以重藥 輕病 不可以重藥 若 輕病 好用重藥 無病者 好服藥 臟氣脆弱 益招病矣”(辛丑本 8-9조로 甲午本 8-9條과 동일하다.)
 ② “嘗見 少陰人 飲食倍常 口味甚甘 不過一月 其人 浮腫而死 少陰人 食消 卽 浮腫之屬而 危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芎歸葱蘇理中湯”(辛丑本 8-12로 甲午本 8-15條과 동일하다.)
 ③ “少陰人 吐血 當用 獨參八物湯 咽喉痛 當用 獨參官桂理中湯”(辛丑本 8-11로 甲午本 8-11條과 동일하다.)
 32)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 附補遺方
 “獨參官桂理中湯 ○ 三十六板 人蔘 五錢 白朮 乾薑 白芍藥 官桂 各二錢 陳皮 甘草 各一錢 棗二枚 本方 加附子 二錢 名曰獨參附子理中湯”
 3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揭書 : 30 “獨參理中湯 人蔘 五錢 白朮 乾薑 白芍藥 各二錢 陳皮 炙甘草 各一錢 大棗 二枚 本方加官桂二錢 名曰 獨參官桂理中湯 加 附子二錢 名曰 獨參附子理中湯 加 紫蘇葉二錢 名曰 獨參蘇葉理中湯”

3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揭書 : (卷之二)30
 “少陰人 吐血 當用 獨參八物湯 咽喉痛 當用 獨參官桂理中湯”(辛丑本 8-11는 甲午本 8-11條와 동일하다.)
 3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上揭書 : (卷之二)27
 “論曰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而 惡寒不惡寒之間相去遠甚而 陽氣之進退強弱泰山之比丘陵也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渴不渴之間 相去遠甚而 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瀟澤也 是故 霍香正氣散 香砂養胃湯之證勢 平地駿馬之病勢也 獨參八物湯 桂附理中湯之證勢 太行短筇之病勢也 若使一天下少陰人稟賦者 自知其病之陽明少陰證 如太行之險路 得之可畏 救之不易 攝身療病 戒懼謹慎之道 有若大路然而不迷則 其庶幾乎”

物構成은 알수 없다. 處方名의 “桂附”에서 “桂”를 官桂로 보면 官桂附子理中湯으로 辛丑本에서 기술된 處方이지만 甲午本 조문에 나온 내용이라 타당성이 없으며, 桂枝로 본다면 甲午本의 桂附霍陳理中湯의 母體가 되는 處方이거나 桂附霍陳理中湯을 일컫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³⁶⁾

d. 獨蓼湯은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그대로 넘어간 條文에 나오는 處方이다. 따라서 甲午本 또는 그 이전에 동무가 사용하였던 處方으로 보인다. 앞서 3.(1).1)⑤에서 人蓼陳皮湯을 설명하면서 獨蓼湯加味方이 조금 보완이 되어 初期處方이라고 추정되는 辛丑本 人蓼陳皮湯이 나왔고, 이 人蓼陳皮湯은 시기적으로 甲午本 獨蓼良崩湯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獨蓼湯을 사용했던 시기는 甲午本 훨씬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補遺方에서 獨蓼湯에 대해 甲午本 處方이라고 기술하면서 藥物構成과 用法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方藥合編』 「增補方」의 獨蓼湯과 一致하며, 『東醫寶鑑』의 獨蓼湯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② 辛丑本의 것이라 추정되는 處方들 (4處方)

a. 蓼莢湯과 관련된 조문은 甲午本에서 太陽病厥陰證의 病理만 기술³⁷⁾되었으나, 辛丑本으로 개조되면서 여기서 處方만 추가된 條文³⁸⁾

에 나오는 處方이다. 따라서 이 處方은 辛丑本의 新定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혹 人蓼吳茱萸湯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바로 뒤에 人蓼吳茱萸湯이 붙어나오기에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이는 藥物構成을 알수 없는 辛丑本의 新定方으로 보인다.

b. 薑朮寬中湯은 辛丑本에서 少陰人 太陰證 下利清水에 사용하는 處方이다. 四象新編에서 同名의 處方名과 藥物구성이 나오는데, 赤白何烏寬中湯에 白朮을 加한 것이다. 辛丑本으로 고쳐 쓸 당시에 東武가 비교적 후기에 만든 新定方으로 辛丑本 藥方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c. 人蓼桂皮湯과 人蓼附子理中湯은 辛丑本에서 太陰病 陰毒證에 사용하는 處方³⁹⁾으로, 甲午本에서 獨蓼附子理中湯을 사용하던 내용⁴⁰⁾이 고쳐진 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두處方은 辛丑本의 處方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人蓼附子理中湯은 확인할수 없는 處方이지만, 人蓼桂皮湯은 四象新編을 통해 藥物構成을 확인⁴¹⁾할수 있으며, 이는 辛丑本 新定藥方 人蓼陳皮湯의 藥物加味⁴²⁾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6) 甲午本 處方에서 桂枝와 附子를 동시에 사용하는 用例는 桂附霍陳理中湯의 一例뿐이다.

37)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前掲書 “論曰 張仲景所論 至 變爲此證也 下新本加入”

38)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二)14 “論曰 張仲景所論 厥陰病 初無腹痛下利等證而 六七口 猝然而厥 手足逆冷則 此 非陰證之類也 乃 少陰人 太陽傷風 惡寒發熱汗自出之證 正邪相持日久 當解不解而 變爲此證也 此證 當謂之 太陽病厥陰證也 此證 不必用 當歸四逆湯 桂麻各半湯而 當用 蓼莢湯 人蓼吳茱萸湯 獨蓼八物湯 不當用 大承氣湯而 當用 巴豆”

39)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上掲書 : (卷之二)17-18

① “張仲景曰 傷寒陰毒之病 面青 身痛如被杖 五日可治 七日不治”

② “李樾曰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而臥 甚則 咽痛聲啞 加以頭痛 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唇指甲青黑 身如被杖 又 此證 面青白黑 四肢厥冷 多睡”

③ “論曰 右證 當用 人蓼桂皮湯 人蓼附子理中湯”

4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19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 食滯 下利 表氣陰寒之證 半下半滯 日久不解 而變爲此證也 此證 當容獨蓼附子理中湯 面青白黑多睡之證 尤重證也 大便滑利者 當用獨蓼附子理中湯 或加生附子五分 大便秘閉者 當用獨蓼附子理中湯 兼用巴豆半粒或全粒”

4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前掲書 : (劑方)6 “人蓼陳皮湯 人蓼 一錢 生薑 砂仁 陳皮 一錢 治小兒陰毒慢風連服數日以炮乾葶易生薑又加桂皮一錢 名人蓼桂皮湯”

4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二)44

③ 甲午本 以前の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미상의 處方들

a. 附子理中湯은 해당 條文이 甲午本에는 존재하지 않고, 辛丑本에서 추가된 霍亂과 關格的 治驗例⁴³⁾에서 나오는 處方이다. 처음 이 處方은 東武遺稿에서 少陽人 泄瀉⁴⁴⁾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기술되었다. 辛丑本 치험례에서 白何烏理中湯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는 甲午本 또는 辛丑本때로 추정할 수 있으나,⁴⁵⁾ 東武遺稿를 쓸 당시의 初期處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變方인 附子理中湯之劑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

b. 巴豆如意丹은 사용된 조문은 霍亂과 關格에 대한 東武의 연속된 治驗例중에서 나온 處方이다. 그 연속된 治驗例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巴豆如意丹을 사용한 것(7-17條)이고, 두 번째는 桂附霍陳理中湯을 사용한 것이고(7-18條)이고, 세 번째가 獨蓼湯加味方을 사용한 것(7-19條)이다. 桂附霍陳理中湯은 甲午本의 處方으로, 첫 번째 治驗例의 以後에 두 번째 治驗例가 있었다고 說明하므로 巴豆如意丹

은 甲午本 이전의 東武處方이라고 할수 있으며, 藥物構成 등은 알 수 없다.

④ 謾記로 추정되는 處方

獨蓼八物君子湯은 辛丑本에서 少陰人 鬱狂末期の 胃家實 不更衣 發狂證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갑오본에서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내용이 추가된 條文⁴⁶⁾에서 기술된 處方이다. 실제로 獨蓼八物君子湯이란 處方은 실제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註釋書들에서는 獨蓼八物君子湯, 獨蓼八物湯, 獨蓼湯이나 八物君子湯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⁴⁷⁾

2) 既存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것 (11處方)

病證論에서 기술된 알수 없는 25處方들중에서 『東醫寶鑑』 등에서 기술된 기존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11處方으로 大黃大承氣湯, 四順理中湯丸, 四順湯, 瀉心湯, 小半夏湯, 蘇合元, 承氣湯, 柴胡湯, 理中丸, 抵當桃仁湯, 朱氏茵陳橘皮湯이다. 이들은 모두 문맥을 살펴봤을 때 기존의 處方이란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표 22).

“人蓼陳皮湯 人蓼 一兩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 棗二枚 本方 以炮乾薑 易生薑 又加桂皮 一錢則 尤有溫胃逐冷之力”

- 4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上揭書 : (卷之二)21
“嘗見 少陰人 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 一二日則必腹痛泄瀉 一二日 用白何烏理中湯 二三四貼 或甚則 附子理中湯 一二貼則 泄瀉必愈矣 忽一日 此兒心有憂愁 氣度不平 數日故 預治次 用白何烏理中湯 二貼則 泄瀉因作 下利青水 連用六貼 青水不止 急用附子理中湯 六貼 青水變爲黑水 又二貼 黑水泄瀉 亦愈 又二三貼 調理 以此觀之則 下利青水者 病人有霍亂關格而後 成此證也 此證 當用 巴豆 破積滯痼冷 自是無疑 此兒 十歲冬十二月 有下利青水病 十一歲春二月 又得亡陽病”
- 44) 李濟馬著. 東武遺稿. 前揭書 : 170, 183

① “少陰人 泄瀉 附子理中湯也 或十全大補湯加肉苳菴破古紙也”

② “傷寒陰症 二三四五日 泄瀉不止 則七日不能發汗而死 急以附子理中湯救之 附子重數 則爲貳錢可也 二三四五六貼 或連服 或次次服可也”

45) 白何烏理中湯은 甲午本과 辛丑本에 모두 있다.

- 46)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揭書 : (卷之二)9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 大承氣湯 始作備而 可用不可用時候 難知 故 紛紜多惑而 始知 張仲景之不可信也 張仲景 大承氣湯 元是殺人之藥而 非活人之藥則 大承氣湯 不必學論 此 胃家實病 不更衣 發狂證 當用 巴豆全粒 或用 獨蓼八物君子湯 或 先用 巴豆 後用 八物君子湯 以壓之”

47) “獨蓼八物君子湯”에 대해서 朴의 『東醫四象大典』, 韓의 『東醫壽世保元註釋』, 尹의 『四象體質醫學論』는 獨蓼八物君子湯이라 해석하였고, 洪의 『四象醫學原論』은 獨蓼八物湯이라 해석하였고, 1992년 麗江出版社 北韓解釋版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獨蓼湯이나 八物君子湯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22. 辛丑本 少陰人 病證論중 處方名만 있고 既存의 것으로 推定되는 處方

기타處方	출전의 추정
大黃大承氣湯	大承氣湯
四順理中湯丸	四順理中湯과 四順理中丸
四順湯	四順理中湯 一名 四順湯 (東醫寶鑑출전)
瀉心湯	傷寒의 瀉心湯之劑 (補遺方에서는 甲午本 處方이라 記述)
小半夏湯	東醫寶鑑에서는 處方構成 없고 入門 통해 確認가능
蘇合元	蘇合香元
承氣湯	仲景 承氣湯之劑
柴胡湯	仲景 柴胡湯之劑
理中丸	理中湯의 丸劑化
抵當桃仁湯	仲景 抵當湯과 桃仁承氣湯
朱氏茵陳橘皮湯	朱肱의 茵陳橘皮湯

(2) 少陽人 新定藥方외의 病證論中에서만 확인 할수 있는 處方들 (7處方)

이는 病證論중에서만 언급된 處方들로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을 벗어난 處方들로 辛丑本중에서 藥物構成을 알수 없는 處方들로, 少陽人 病證論중에서 7處方이 확인되는데 甘遂散, 桂麻各半湯, 蘆薈肥兒丸, 柴苓湯, 六味湯, 知母白虎湯, 陷胸湯이다. 이 處方들을 既存處方이라 추정되는 것들과 東武가 만든 新定方으로 분류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東武의 處方으로 추정되는 것 (3處方)

少陽人 病證論중에서만 나오는 7處方중에서 東武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處方은 3處方으로 甘遂散, 蘆薈肥兒丸과 知母白虎湯이다(표 23).

표 23.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중 處方名만 있고 東武의 것으로 推定되는 處方 (3處方)

	四象新編	甲午本	補遺方
甘遂散	○	○	×
蘆薈肥兒丸	×	×	×
知母白虎湯	×	×	×

① 甘遂散

甘遂는 辛丑本에서 少陽人 結胸 治驗例⁴⁸⁾중에서 기술되며, 甘遂의 用量에 대해서 東武는 통상 三分사용하며 大結胸에는 五分⁴⁹⁾사용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四象新編에서는 大甘遂散과 小甘遂散⁵⁰⁾으로 정리하여 處方名이 붙어 나온다. 그러나 甲午本에서 甘遂散⁵¹⁾이라고 新定方과 用例가 모두 설명되으나, 新編의 大甘遂散과 小甘遂散과는 藥物構成이 틀리다. 辛丑本の 문맥만 보아서는 甲午本 處方인지 四象新編의 大小甘遂散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結胸에 사용하는 治驗例은 甲午本때부터의 藥物經驗⁵²⁾인 것으로 보인다.

48)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三)3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 … 嘗治結胸 用甘遂散 溫水調下 五次輒還吐 至六次不還吐 …”

49)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三)3
“… 結胸 甘遂末 例用三分 大結胸 用五分 …”

50)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前掲書 : (劑方)10 “大甘遂散 治大結胸 甘遂末 五分” “小甘遂散 治小結胸 甘遂末 三分”

5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前掲書 : 34, 46

① “今考更定 少陽人 膀胱病 … 結胸者 常用甘遂散 …”

② “甘遂散 甘遂末 一錢 輕粉末 一分 和勻糊作丸 而作分十九 朱砂爲衣 ○ 作丸 則堅硬難和 每用時 以紙二三疊包裹 而以杵搗碎作齏末 溫水調下一丸 候三四辰刻 不下利 則再用二丸 下利二三度 因進米飲 否則氣陷難堪 治胸膈痞塞 水入即吐 及急咽喉水不入口 久病久瘧 神效 心下手不可近者 用三丸”

52) 東武遺稿에서는 少陽人 藥物部分에서 結胸에 사용한다고 한번 설명하고, 그 후에 8회의 甘遂用例에서는 모두 大小便不通을 治療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② 蘆薈肥兒丸

肥兒丸에 대한 用例가 가장 처음 나온 곳은 東武遺稿에서 肥兒丸本方去蔘⁵³⁾로 既存의 肥兒丸에서 人蔘을 去한 處方이고, 東武遺稿와 辛丑本の 用例가 少陽人 小兒 食多肌瘦⁵⁴⁾로 일치한다. 草本卷, 四象新編과 今考更定을 따른 經驗藥方⁵⁵⁾의 肥兒丸은 타 體質藥物이 없는 處方으로 藥物構成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그 主治證은 모두 小兒疳積이다. 따라서 辛丑本에서 설명한 條文은 東武遺稿때의 治驗例과 일치하며, 藥物構成은 神麩⁵⁶⁾이란 약물을 붙 때 草本卷處方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표 24).

표 24. 肥兒丸의 비교

	經驗藥方	草本卷	四象新編
	肥兒丸	肥兒丸	李氏肥兒丸
胡黃連	5	5	5
使君子	4.5 ¹⁾	5	
黃連	3.5	10(川黃連)	3.5
神麩	3.5		3.5
麥芽	3.5	5	3.5
白茯苓	3	5	2.5
蘆薈	2.5	2.5	2.5

細註 1) 使君子一味 未能經驗 的知藥性故 不敢輕論

<단위 : 錢>

- 53) 李濟馬著. 東武遺稿. 前掲書 : 207
 “少陽小兒 身脚瘦而肚腸大者 此疳病也 肥兒丸本方去蔘而用之 可急治也 若緩置而不疑則恐成他病 而殞死也”
- 5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三)21
 “少陽人 小兒 食多肌瘦 宜用 蘆薈肥兒丸 忍冬藤地骨皮湯”
- 5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上掲書 : (卷之三)25
 “肥兒丸 :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 五分 人蔘 黃連 神麩 麥芽 山查肉 各 三錢 五分 白茯苓 白朮 炙甘草 各 三錢 蘆薈 二錢 五分 右爲末 黃米糊丸 綠豆大 米飲下 二三十丸 此方 出於醫鑑書中 治 小兒疳積 今考更定 此方 當去 人蔘 白朮 山查肉 甘草而 使君子一味 未能經驗的知藥性故 不敢輕論”
- 56) 神麩은 東武遺稿에서 少陽人과 少陰人 藥物로 配屬을 시켰다. 그러나 草本卷, 備忘錄, 甲午本, 辛丑本の 東武處方을 보면 少陽人處方에서 사용된 경우는 없고, 少陰人處方에서 사용된 경우는 몇 개 있다. 따라서 神麩이 빠진 草本卷 處方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종형태의 肥兒丸이다.

③ 知母白虎湯

辛丑本에서 새로이 추가한 少陽人 亡陰證에 관한 1899년의 東武의 末期 治驗例에 나오는 處方이다. 이 治驗例의 내용을 살펴보면 “少陽人 亡陰患者에게 첫 處方으로 生地黃, 石膏 各 6兩, 知母 3兩을 쓰고 다음날 둘째 處方으로 荊防地黃湯加石膏4錢을 2貼을 連服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荊防地黃湯 2貼의 약 효과가 知母白虎湯의 10배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⁵⁷⁾고 한다. 첫 處方인 生地黃, 石膏, 知母는 甲午本과 草本卷에서 기술한 東武의 白虎湯⁵⁸⁾ 15倍方인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10倍라고 하는 것은 비교대상을 생각해 보면 15倍方 白虎湯과 2倍方 荊防地黃湯는 7.5배 차이가 나고 이는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10배라고 생각할수 있다. 따라서 知母白虎湯은 生地黃, 石膏, 知母의 東武의 初期 白虎湯로 추정할수 있다. 知母白虎湯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經驗藥方에서도 白虎湯이 있기에 구별하기 위해서 處方名을 바꾸었으리라 추정된다.

2) 既存의 處方으로 추정되는 것

少陽人 病證論중에서만 기술된 7處方중에서 동무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甘遂散, 蘆薈肥兒丸, 知母白虎湯의 3處方을 제외하면 桂麻各半湯, 柴苓湯, 六味湯, 陷胸湯의 4處方이 남는다(표 25). 이중에서 桂麻各半湯, 柴苓湯, 陷胸湯의 3處方은 기존의 處方인 것이 거의 확실하며, 六味湯은 조금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 57)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三)11
 “...夜用生地黃 石膏 各六兩 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 能通小便 荊防地黃湯 二貼藥力 十倍於 知母白虎湯 可知矣...”
- 58) 草本卷, 甲午本の 白虎湯은 石膏 生地黃 四錢 知母 二錢로 이루어져 있다.

표 25. 辛丑本 少陽人 病證論중 處方名만 있고 東武의 것으로 推定되는 處方

處方名	비고
桂麻各半湯	用例은 少陰人, 少陽人 病證論에서 나오 고 藥物構成은 太陰人篇에서 기술됨
柴苓湯	既存의 處方(東醫寶鑑출전)
六味湯	東武의 初期 六味地黃湯으로 추정
陷胸湯	仲景 大陷胸湯으로 추정

① 桂麻各半湯

桂麻各半湯은 瘧疾類似 症狀을 설명하면서 甲午本에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病證論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으며, 辛丑本에 와서 太陰人 病證論이 없어졌고, 處方은 太陰人의 經驗藥方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 柴苓湯

甲午本 少陽人 表之裏病人 腹痛泄瀉의 柴胡四苓散의 母體가 되는 處方으로 추정된다. 柴胡四苓散은 柴苓湯에서 타 體質藥物인 白朮, 半夏, 黃芩, 人蔘, 甘草, 桂心이 빠지고 黃連, 瓜蒌實, 滑石, 車前子가 加해진다.

③ 六味湯

六味湯은 辛丑本에서 東武의 1875年 傷寒發狂譫語의 治驗例에서 기술하였다. 六味湯이란 處方名은 東武遺稿⁵⁹⁾에서 처음 기술되며 藥物構成은 알수 없으나, 辛丑本 治驗例에서 말하는 六味湯은 이 處方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

59) 李濟馬著, 東武遺稿, 前掲書 : 170, 199

① “少陽人 泄瀉 益元散也 或四苓散 加柴胡二錢也 或六味湯 倍山茱萸也”

② “六味湯 加知母黃柏 或三四十貼 或石花常服 或童便常服 可當 六味湯數白貼吐血與虛勞同 而六味地黃湯 加生地黃五錢 牡丹皮二錢 尤加黃連梔子也 浮腫脹滿 以甘遂芫花下水 以久味湯 加車前子 調理 或輕粉丸 少陽太陰人浮腫 比太陽少陰人浮腫 輕也”

된다. 六味湯은 東武遺稿의 虛勞篇에서 기술되고, 草本卷⁶⁰⁾과 經驗藥方의 六味地黃湯은 治虛勞하기에 六味湯은 六味地黃湯과 同一한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六味地黃湯에서 山藥대신에 枸杞子를 사용하는 精神은 初期精神이며 末期에는 六味地黃湯이 十二味地黃湯으로 바뀌면서 사라진다.

④ 陷胸湯

辛丑本의 문맥상 大陷胸湯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草本卷에 陷胸湯⁶¹⁾이라는 處方이 있으며 藥物構成은 大陷胸湯에서 大黃이 黃連으로 바뀌고 甘遂의 分量이 늘어났다.

(3) 太陰人 病證論중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處方들

病證論중에만 기술된 太陰人 處方들로 經驗藥方과 新定藥方을 벗어난 處方들로 辛丑本내에서는 處方名만 있고 藥物構成은 없는 處方들로 太陰人篇에서는 葛根萊菔子湯, 古方清心丸, 清心丸, 拱辰丹, 腎氣丸, 定喘湯, 解肌湯, 黑元丹의 8處方이다.

1) 東武의 處方이라 추정되는 것 (1處方)

病證論중에만 기술된 太陰人 處方 8方중에서 葛根萊菔子湯 하나로 辛丑本에서 太陰人 表熱證泄瀉에 使用⁶²⁾하는 處方으로, 補遺方에

6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草藥, 前掲書 : 84

“六味地黃湯 治內傷虛勞虛損 本方加地骨皮 貝母各一錢 名曰地骨皮地黃湯 治盜汗咳嗽 加黃柏 知母各二錢 名曰知柏地黃湯 … 熟地黃四錢 山茱萸 枸杞子各三錢 白茯苓 澤瀉各二錢 牡丹皮一錢”

6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草藥, 上掲書 : 87

“陷胸湯 黃連 三錢 芒硝 二錢 甘遂 一錢”

6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卷之四)10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 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 葛根菔子湯”

서는 甲午本 處方이라 하여 藥物構成을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甲午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處方이기에 補遺方의 誤謬라 생각된다. 이 處方은 이미 草本卷과 備忘錄 등에서 같은 處方名이 존재하나 補遺方과 藥物構成이 일치하지 않는다. 補遺方의 藥物構成은 草本卷의 加葛根湯과 같다. 主治證을 비교해 보면 草本卷의 葛根萊菔子湯은 “治小便不利及淋疾用”하여 辛丑本과 主治證이 맞지 않고, 藥物構成이 같은 加葛根湯의 主治證은 나와있지 않고, 備忘錄의 葛根萊菔子湯은 “治表熱症泄瀉用”이라 하여 辛丑本の 主治證과 일치한다. 藥物構成에서 심도있게 살펴보면 麻黃과 葛根은 表病과 裏病의 대표적인 藥物로 補遺方에서 藥對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甲午本에서 麻黃定喘湯, 升麻開腦湯 등에서 보이고 있지만, 辛丑本에서는 이러한 藥對로 이루어진 處方은 없다. 따라서 辛丑本을 쓸 당시의 後期 處方은 아니라고 추정할수 있다. 同名의 處方이 備忘錄과 草本卷에서 主治證이 왜 달라지는가는 알수 없지만, 主治證을 비교해볼 때 辛丑本에서 기술하고 있는 葛根萊菔子湯은 備忘錄의 葛根萊菔子湯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藥物構成을 볼 때 草本卷의 加葛根湯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26).

표 26. 葛根萊菔子湯의 비교

	草本卷		補遺方	備忘錄
	葛根萊菔子湯	加葛根湯	葛根萊菔子湯	葛根萊菔子湯
葛根	4	2	3	2
薏苡仁		2	3	2
麥門冬		1.5	1.5	1.5
蘿蔔子	2	1	1	1.5
桔梗	1	1	1	1
石菖蒲		1	1	1
黃芩	1	1	1	1
五味子		1	1	
麻黃		1	1	
大黃	1			1
藁本	1			
白芷	1			
升麻	1			
主治證	小便不利及淋疾用		表熱證泄瀉	表熱症泄瀉用

<단위 : 錢>

2) 既存의 處方으로 추정되는 것 (7處方)

太陰人 病證論중에서만 나오는 8處方중 既存의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古方清心丸, 清心丸, 拱辰丹, 腎氣丸, 定喘湯, 解肌湯, 黑元丹의 7處方이다(표 27). 이중에서 腎氣丸의 藥物構成은 少陽人篇에서 나오는데 이는 甲午本에서 少陽人 消渴에 있던 條文을 改抄하면서 太陰人 燥熱로 옮겨지나 經驗藥方은 옮겨지지 않아서 그렇다. 黑元丹과 拱辰丹은 『東醫寶鑑』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定喘湯과 解肌湯은 문맥상 經驗藥方의 麻黃定喘湯과 葛根解肌湯으로 생각할수 있다. 清心丸은 『東醫寶鑑』중에 있지만 中風에 사용하는 處方이 아니므로 經驗藥方의 牛黃清心丸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표 27. 辛丑本 太陰人 病證論중 處方名만 있고, 既存處方으로 推定되는 處方

其他處方	出典의 推定
古方淸心丸	東醫寶鑑에서는 네 종류의 淸心丸이 나오지만 中風處方이 아니다. 따라서
淸心丸	經驗藥方의 牛黃淸心丸으로 추정됨
拱辰丹	東醫寶鑑의 拱辰丹으로 추정됨.
腎氣丸	張仲景의 處方. 腎氣丸은 藥物構成은 少陽人篇에서 나옴.
定喘湯	唐宋明 經驗藥方 麻黃定喘湯으로 추정
解肌湯	唐宋明 經驗藥方 葛根解肌湯으로 推定
黑元丹	黑元(東醫寶鑑출전)

IV. 總括 및 考察

1. 辛丑本에서 언급되는 處方에서 예를 들어 淸心蓮子湯과 같이 辛丑本에서는 그 病證이 설명되지 않아 太陰人의 어느 病證에 어디에 배속시켜야 할지 알 수 없지만 甲午本에서 그 病證이 설명되면서 辛丑本의 處方과는 藥物構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東武의 末期 辛丑本의 사고에서는 이 淸心蓮子湯의 病證論的 根據가 뒷받침되지 못하며 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淸心蓮子湯뿐만 아니라 다수의 處方에서 病證論중에서 理論的 根據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몇몇 病證論중에서 언급된 處方은 藥物構成이 藥方門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補遺方 또는 四象新編 등을 참조하였다.

최근들어 草本卷, 甲午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가면서 辛丑本의 내용을 시대별로 입체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만

약에 處方도 이러한 通時的인 관점에서 病證論의 변천과정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 진다고 볼 수 있다.

2. 經驗藥方은 모두 甲午本의 내용들로 辛丑本에 그대로 옮겨진다. 따라서 半夏散과 같이 辛丑本 病證論으로 개초되면서 사라진 條文의 處方이 언급되기도 하고, 腎氣丸과 같이 甲午本의 少陽人篇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改抄되면서 病證論의 關聯 條文은 太陰人篇으로 옮겨갔지만 處方은 少陽人 經驗藥方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經驗方들은 東武의 初期에 體質別로 나타나는 病理的인 상황에서 既存의 醫書 등을 참조하여 해결해 보려고 한번씩은 사용해 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甲午本에서와 같이 이미 病證論的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初期의 東武 處方이라고 추정되는 備忘錄과 草本卷의 處方들이 다소 확보된 상태에서 體質病證의 상황을 既存醫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辛丑本 藥方門에서 傷寒 經驗方 37方, 唐宋元明 經驗方 37方, 新定方이 79方(變方포함) 해서 모두 153處方(變方포함)이 藥物構成과 함께 기술되었다(표 28).

표 28. 辛丑本 藥方文의 處方분석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합계
傷寒方	23	10	4	0	37
後世方	19	9	9	0	37
新定方	24 (31)	17 (20)	24 (26)	2 (2)	67 (79)
합계	66 (73)	36 (39)	37 (39)	2 (2)	141 (153)

보기 : ()안의 숫자는 變方까지 합친 처방의 개수이다.

傷寒 經驗方은 藥方門에서 모두 37處方이 기술되며, 이 중에 35處方이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기술되며, 用例가 없는 處方이 2方 있으니, 첫째는 少陰人 半夏散으로 甲午本에서 언

급하였으나 辛丑本으로 개초되면서 삭제되었고, 두 번째 大柴胡湯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用例를 찾아볼 수 없다(표 29).

표 29. 辛丑本 傷寒論 經驗方の 病證論중에서 의 用例 분석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합계
	23	10	4	0	37
病證論언급	22	10	3	0	35
病證論무언급	1	0	1	0	2

唐宋元明의 經驗方은 藥方門에서 모두 37處方이 기술되며, 이 중에 22處方이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기술되며, 用例가 없는 處方이 15處方 있다(표 30).

표 29. 辛丑本 唐宋元明 經驗方の 病證論중의 用例 분석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합계
	19	9	9	0	37
病證論언급	12	5	5	0	22
病證論무언급	7	4	4	0	15

東武의 四象人 新定方은 藥方門에서 變方까지 합쳐서 총 79處方이 기술되며, 이 중에 58處方이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기술되며, 用例가 없는 處方이 21處方이 있다(표 31).

표 31. 辛丑本 新定方の 病證論 中の 用例 분석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합계
	31	20	26	2	79
病證論언급	21	17	18	2	58
病證論무언급	10	3	8	0	21

보기 : 본방에서 변방까지 합한 숫자이다.

4. 辛丑本 藥方門의 141處方(變方까지 합치면 153處方)외에 病證論에서 藥物構成이 확인

되지 않는 40處方이 있다. 문맥상 우리가 藥物構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處方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22處方이 되었고, 藥物構成을 확인할 수 없는 東武의 新定方으로 추정되는 것이 18處方이 있었다.

이 18處方중에서 다수가 甲午本의 處方이었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다수의 甲午本 조문들이 개초되었을 때 그대로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묻어온 것들이다. 따라서 甲午本 病證論의 사고가 많이 개입된 處方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18處方중에서 몇몇개는 甲午本 이전의 處方이었다고 추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무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治驗例들을 확인할 수 있고, 同名의 處方들을 辛丑本 이전에 동무의 서적을 찾아보았을 때 體質別 病證論이 세워지기 전의 書籍인 東武遺稿의 일부나 草本卷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표 32).

표 32. 辛丑本으로는 藥物構成을 알 수 없는 病證論의 處方들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합계
新定方	14	3	1	0	18
既存方	11	4	7	0	22
합계	25	7	8	0	40

V. 결 론

辛丑本에서 기술된 處方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病證論의 處方은 藥方門에서 언급된 141方과 언급되지 않은 40方이 있다. 이 40方에서 東武의 新定方으로 추정되는 것이 18方 있고, 既存處方으로 추정되는 것이 22方 있다.
2. 經驗藥方은 甲午本에 완성된 내용으로 이후로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3. 藥方門의 傷寒論經驗藥方 37方중에서 35方

이 病證論 중에서 기술되며, 2方은 기술되지 않는다. 唐宋元明經驗藥方 37方중에서 22方이 病證論 중에서 기술되며, 15方은 기술되지 않는다. 新定方 79方중에서 58方이 病證論중에서 기술되며, 21方은 기술되지 않는다.

辛丑本만으로 모든 處方들의 病證論的 根據를 밝히지 못하며, 이 處方들은 時期的인 多樣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病證論중에서 用例가 없는 新定方과 病證論중에서 處方名만 언급된 處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더 研究되어야 한다.

따라서 辛丑本의 處方들은 通時的인 觀點에서 再解釋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李濟馬著, 朴爽彥譯.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12. 韓東錫著. 東醫壽世保元註釋. 誠理會出版社. 1967
13. 尹吉永著. 四象體質醫學論. 明寶出版社. 1986.
14. 金達來譯編. 東醫壽世保元補編. 대성의학사. 2002
1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8.
16. 黃度淵著. 對譯證脈方藥合編. 南山堂. 1994.
17. 韓昞錫.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麗江出版社. 1994.
3.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4.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6. 金九翌筆, 李濟馬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7. 金九翊 筆, 李濟馬 原著. 東醫四象草本卷備忘錄. 筆寫本. 1951.
8.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友文社. 1929.
9.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10. 李濟馬著, 洪淳用, 李乙浩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5.